

“성평등교육 의무화하자”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9.18 16:24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 실천과제 3가지 도출...①성평등 교육 의무화 ②연맹·지역본부에 여성사업 담당자 배치 ③조직내 여성간부 확대

[사진1]

민주노총이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성평등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8~19일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2008 성평등 조직문화, 너&내가 만든다’는 주제로 제1기 성평등학교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성평등학교에서 참가자들은 ▲성평등 교육 의무화 ▲연맹·지역본부에 여성사업 담당자 배치 ▲조직내 여성간부 확대 등 세 가지 성평등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1년 동안 각 현장에서 이 과제들을 집중 실천하기로 했다.

[사진3]

이번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는 민주노총 내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와 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성평등 기념, 역사, 관점, 현실, 지향에 대한 다양한 총론적 이야기를 듣고 자신 삶과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사진2]

참가자들은 분반토의를 통해 조직 내 성차별 실태를 공유하고 조직 내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한 후 향후 1년 동안 조직에서 실천해야 할 우선과제를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성평등 학교에 참가한 간부, 조합원들은 성평등 실천방안 선포식을 힘있게 개최해 실천결의를 높였으며, 이시우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강화도 지역 문화체험을 통해 김포 애기봉전망대-부근리 고인돌-총렬사 등 강화도 내 역사유적들을 돌아보며 정전협정과 한강하구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5]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여성사업 부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앞으로 민주노총 전체 간부활동가들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이번 제1기 성평등학교를 통해 만들자”며 성평등학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일상활동 속에서 여성문제를 남녀 활동가들 모두 고민하고 실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수감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낀 소회를 밝히고 “여성들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진데 반해 조직문화와 간극이 커서 많은 여성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번 성평등학교를 통해 실천방안들을 정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에는 각 조직 남성간부들도 참가해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를 남녀가 함께 혁신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표시작]“부당한 차별과 억압, 더 이상 참지말자”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 교장 민주노총 김은주 부위원장 현장 인터뷰

[사진4]▲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 목적과 의미는=이번 성평등학교는 민주노총 조직 내 성평등문제 관련 현황과 전체

여성노동자들 현실을 돌아보고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과거에는 성평등 관련 사업을 여성들만 조직하고 여성들만 참여했다.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만 성평등 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성평등 학교에서는 최초로 남성들도 참가하도록 했다.

조직 내 핵심부서인 정책, 조직, 비정규, 교육선전 부서와 임원 중 한 명이 반드시 참가하도록 했다. 남성들 참가를 적극 조직한 취지는 관련 사업을 전개할 때 성평등적 사고하에 실천하고 투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과 투쟁방향을 결정할 때 성평등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 목적은 성평등 조직문화가 왜 필요한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실천과제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출한 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민주노총 조직에서 선전과 캠페인 등 후속사업을 통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또 그동안 관념적, 당위적으로만 인식돼 온 성평등을 실제 조직 안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평등 학교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성차별적 가부장적인 활동가들 인식과 문화를 바꿔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주노총은 대자본, 대정권 요구에 주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며 성평등학교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조직 내 성평등 실태에 대해=조직이 평등하나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남녀 비율이 균형적인가를 보자. 총연맹 사무총국을 비롯해서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 성원들 성비를 보면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다. 물론 할당제를 통해 중앙위와 대대 정도는 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구나 일상활동을 핵심적으로 책임지는 집행부는 할당제마저 없어 여성들 참여가 더 저조하다.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그 성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남성 중심으로 사고하고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성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현재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맹 조직들은 지나친 남성 편향으로 돼 있다.

또 노동조합 핵심요직인 정책, 조직, 비정규 등 관련부서에서 여성활동가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여성들은 주로 총무, 교선, 여성사업 등에 집중돼 있다. 당연히 사업계획과 투쟁방안 등 전체 운동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급 경우 여성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 조직은 평등하지 않다.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맹 산하 조직들에서 끊임없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폭언과 폭행도 공개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젊은 여성 활동가들과 나이든 남성 활동가들 간에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는 경우도 있다. 남성 선배들이 거칠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공개적으로 알리기 쉽지 않아서 은폐되고 또 지속된다. 그런 문제로 호소하는 여성동지들이 적지 않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란 무엇인가=한 마디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변혁을 위해 가장 앞장서 투쟁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성차별과 성폭력 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졌는가에 따라 사회변혁운동 방향과 실천방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성평등한 인식과 조직문화가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전반적 운동핵심과제에서 평등이 멀어져 있다. 정규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남성들 노동권을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하면서도 그다지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주소다.

민주노총이 성평등한 사고와 인식을 갖고 활동하지 않고, 기존 운동을 관성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으며 운동이 폭넓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이 성평등한 사고를 하지 못해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낼 때 전체 노동자 민중 이익도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고민하고 적극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운동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노동자 기층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엄혹하게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그것은 바로 민주노총 활동가들 착각이다. 활동가들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단히 선진적이고 진보적이고 평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총 활동가들은 자본에 대한 저항이나 계급투쟁을 전개하며, 거대담론을 고민하고, 그런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식하고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향해 '나는 활동가지만 평등하지 않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답습하고 있으며, 차별적 사고 가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반성과 실천이 나올 수 있다. 활동가 자신 근본적 고민과 자기성찰을 통해 진보적이고 평등하다는 착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평등 출발점이다.

또 여성들이 여성문제를 등한시하는 것도 성평등을 치명적으로 가로막는 요소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지역과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착취당하는 개별노동자들 모두가 평등하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자기 자신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운동인가?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진짜노동자'이고 올바른 노동자다. 마찬가지로 여성 자신도 자본주의사회 모순과 차별, 불평등,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한 피해자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해야 한다.

여성을 억압하고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를 당연히 철폐해야 하고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과제를 스스로 등한시 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을 차별하는 자본과 뭐가 다른가?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빌붙어 아부하다가 정작 임금인상 문제가 불거지면 눈에 불을 켜는 어용세력과 뭐가 다른가?

일각에서는 여성할당제가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한다. 할당제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해돼야 한다.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과 함께 누려야 할 권리를 독점해 왔고, 자본이 만들어준 차별구조를 달콤하게 향유했다. 지금까지 남성들이 가졌던 것들은 원래 여성들과 함께 나뉘어야 했던 몫이었던 것이다.

여성문제를 여성들만의 것으로 사고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떠안지 않고 있다. 여성들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남성들과 함께 인간 모두의 가치가 상향평준화돼야 한다. 여성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풀릴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야만 남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노동운동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지금 여성문제가 부각돼야 하는 이유는=민주노총은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모두 평등하게 노동하며 인간답게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운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억압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강령에 의거해 전체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투쟁하는 조직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문제가 혁신을 말하는 지금 부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혁신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부정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과거와 현재가 올바르게 잘 돼 왔다면 혁신은 필요치 않다.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에 누구나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미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과거와 현재를 과감히 부정해야 한다.

정규직, 남성, 대공장 중심 노동운동을 부정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문제를 상대적으로 낮게 취급했던 것을 부정해야 한다. 과거를 부정하며 새롭게 혁신하려면 당연히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속에서 민주노총이 여성문제를 새롭게 고민하는 곳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 제1기 성평등학교를 통해 민주노총 잘못된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자고 제기하는 바다. 이번 성평등학교에 참가한 성원들이 진지한 고민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해내고 1년 내내 실천해나갈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제2기 성평등학교는 비단 여성문제를 혁신하는 것만이 아닌 민주노총 전체를 혁신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노동운동 속에서 성평등 인식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녹아나려면=여성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여성문제를 말하면서도 남녀 모두들 마음이 닫혀 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활동가들도 여성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남성으로 돌아가서 가부장적 사고와 자본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본다.

여성문제는 그야말로 자본 모순과 차별 역사 결정판이다. 자신이 고민해야 할 핵심적 문제 중 하나가 여성문제임을 인식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내부부 해고시 여성우선해고, 승진시 차별을 겪는 과정에서 노조는 침묵했다. 여성들은 자기 문제를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노조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동료이면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식이 달랐고 여성들은 인내해야 했다.

남성들은 바로 내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제도적 조치도 필수적이다. 물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직이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저항도 있을 것이다. 정부조차도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개선 조치를 취하고, 자본도 성희롱 의무교육 등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의무적으로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도보완을 결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연맹·지역본부와 단위노조에 이르기까지 전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에서부터 집행단위에 이르기까지 전폭적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참여를 늘리는 등 장단기 실천사업과제들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조합운동과 전 사회적 차원 성평등 연계방안에 대해=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업이 현장까지 내려가지 못했다. 따라서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여성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사업을 고민하는 단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람과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성 인지적 예산을 편성해 성평등 사업을 폭넓게 전개하고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같은 조직은 3~5년 정도 꾸준히 사업을 이어가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담당 임원 의지와 각오 필요하다.

저는 현장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서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13년 동안 여성사업을 해 왔다. 여성사업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늘 겸직으로 여성사업을 진행했다. 제 평생 소원이 여성사업을 전담해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직 임기가 1년반 남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불평등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중에게=더 이상 참지 말자. 이제 본격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 실천에 나서자.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 문제가 우리 사회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조건들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에서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활동가들이 없다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차별을 인내하거나 불평등을 모른 척 하지 말자. 부당한 상황을 겪지 말고 과감히 행동하자. 이제까지의 굴레가 앞으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하고 실천하자. 불평등과 차별을 겪으며 느꼈던 분노와 울분, 좌절을 이제는 참지 말자.[표끝]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